

풍요로운 바다 살맛나는 어촌 구현

도, 올해 인공어초 설치 어초어장 관리 등 7개 사업 87억 투입 '황금어장' 조성

전북도는 올해도 서해안 황금어장 해양생태계 보전 및 생산력 증대를 위하여 총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풍요로운 바다, 살맛나는 어촌을 구현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어초 설치(21억원), 어초어장 관리(4억원), 연안바다목장 조성(20억원), 바다숲 조성(10억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0.5억원), 수산종자 방류(30억원) 및 방류효과 조사(1.6억) 등이다.

인공어초는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여 해양생태계 회복과 지속적 생산성 증대를 위해 지난 1974년부터 시작하여 작년까지 적지 면적의 50.2%인 1만6,875ha(어초 69,013기)를 설치했다.

올해는 군산과 부안 2개 해역 12단지, 96ha(어초 36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3월에 어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어초의 종류와 설치수역 등을 결정,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다. 어초어장관리는 인공어초 설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초의 시설상태, 어장 주변 폐기물 수거, 어획 및 부작생물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4,320ha를 관리할 계획이며, 2002년부터 작년까지 24,372ha를 추진해 폐기물 158ton을 수거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은 도서 연안의 수산자원회복과 지속가능한 어업활



동학농민혁명 농민군 진격로 걷기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동학농민혁명무장기포기념제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기념행사 및 무장기포기념제'가 고창군 공음면 무장기포지와 무장읍성 일원에서 25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기포지에서 무장을성까지 약 7.2km에 걸친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로 고갈되어가는 어족자원을 회복하고,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기 위한 수산종자방류는 도내 5개 시·군(군산, 김제, 진안, 임실, 부안) 수역에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광어, 해삼, 우럭 등 바닷고기와 뱀장어, 붕어, 메기 등 민물고기 832만마리, 바지락 종패 248톤을 방류한다.

또한, 주꾸미 산란·서식장을 부안 연안에 조성(인공패류결집 약 5만개)하여 감소된 주꾸미 자원복원과 날

서 평가한 서해안지역 어초사업 효과 분석에서 어초설치지역 어획량이 비설치 지역보다 약 2.7배 높고, 종자 방류 경제 효과 조사에서도 광어 2.6배, 우럭 1.3배, 감성돔 3.7배, 해삼 1.5배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연안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앞으로도 인공어초 설치, 바다숲 등 수산자원조성 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옴부즈만 기능 강화

농어촌공, 'KRC 혁신위원회' 발족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25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청렴옴부즈만 기능 강화를 위해 KRC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에 발족한 혁신위원회는 기존 의 감사자문위원회와 KRC옴부즈만을 통합하고 외부고객과의 소통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위원장은 법조계,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7명과 내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경영진과 감사실에서 공사에 필요한 청렴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외부위원과 의견교



환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부인의 객관적 시각에서 사전에방적이며 근본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최인문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국민이 공감하는 청렴과 반부패적 요소를 없애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수호 기자

올 전국체전 성공 개최

한인체육인들도 돕는다

세계한인체육회장단 전북 방문 해외동포 선수 지원 등 논의

세계 각국에서 국위선양하며 활동하고 있는 세계한인체육회단이 전국체전 개막(10월 12일)을 160여일 앞두고 전라북도를 방문했다.

이에 따라 25일 전북도청에서 김승일 행정부지사, 윤만영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각국 한인체육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 관계자 회의를 했다.

세계한인체육회장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총 18개국에서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인체육회 회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 문화와 경제, 관광 등을 알리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제9회 전국체전 준비상황과 해외동포 선수단 지원계획설명, 전국체전 관련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지방선거 콘텐츠 공모 결과 발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지방선거 콘텐츠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전북'을 주제로 그림형식 및 산문형식 2개 분야로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과 세계한인체육회장은 해외동포 선수단 숙박과 차량지원, 교류행사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도와 세계한인체육회장단 간 상생 협력방안도 모색했다.

전북도는 이번 전국체전에 18개국 1,100여명의 해외동포 선수단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항 도착부터 귀국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세계한인체육회장단과 상시 협의체단을 구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날 저녁 세계한인체육회장단 환영만찬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력이 높아졌다."며, "이번 전국체전이 전북도가 새로운 비상을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되는 국민화합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회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그림형식은 총 55건(일반부17건, 학생부38건), 산문형식은 총 164건(일반부 103건, 학생부61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사결과 총 36편(일반부 18편, 학생부 18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총 360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수상작은 SNS 등 게시 및 각종 행사 시 전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행안부, 안전부패 감시 강화 '시도 감찰팀' 가동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안전 분야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25일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법정부패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실태조사, 안전부패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신설 등 안전 분야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복합건물과 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진 시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고질적 안전문제를 부패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에 따르면 안전부패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고질적

안전문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의미한다.

2개 분야 7대 세부 과제가 마련됐다. 감시시스템 구축의 경우 ▲분야별 안전부패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 ▲안전부패 제재수단 확대 ▲법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구성 등이 추진된다.

반부패 환경 조성 방안은 ▲국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공개 ▲불시 안전점검 확대 ▲안전분야 국가보조 사업 감시강화 ▲주민참여 감시 확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안부는 안전분야 부패방지방안 후속대책으로 26일 중앙부처와 차차 단체 간 협의체계 구축을 위해 반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

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운영 지침을 통보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감찰팀은 팀장 포함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시·도별은 평균 3명이다. 총 43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업무 수행인력과 안전분야 감시인력을 재배치한다.

안전감찰팀은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예방조치, 재난복구 분야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적법성을 조사한다.

특히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밀집이 용이한 시설, 식품안전, 근로 및 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분야를 선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도, 건설공무원 역량 강화교육

전북도는 오는 26~27일과 6월 14~15일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내 건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건설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건설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건설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2014년부터 시행한 맞춤형교육으로 이번 교육에는 전북도 14명, 시군 71명 등 전북도내 85급 이하 건설교통업무 담당공무원 85명이 참여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노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하기 위한 안전도로 건설 및 관리방향과 건설분야 청렴문화 정착이다. /김진성 기자

무주군 공고 제2018-483호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임인된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743-1번지 일원의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구역명: 방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변경: 산업개발진흥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면적: 3만533㎡ → 3만629㎡ (중 96㎡)
 - 구역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특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 면적: 3만533㎡ → 3만629㎡ (중 96㎡)
 -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3만629㎡
 -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사유
 - 전통민장가공설비를 위해 기 결정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를 급회 전통민장가공설비의 활성화 및 시설물의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야영장 조성을 통하여 마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민 공람장소 및 기간
 - 공람장소: 무주군청 건설교통과, 산업경제과
 -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도면 및 조사: 실용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건설교통과(063-320-2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6일 무주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